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권 해 수[†]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상담 경험이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 9명을 심층면접하였고,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의 중심 현상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성폭력 인지', '절박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그리고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치유 과정에서 '지지받음', '성폭력 피해 의미 재해석'에 의해 중재를 받았으며, '감정과 만남', '새로운 대처 기술 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짐'의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의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감', '삶을 재구성함'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치유 과정 및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 피해, 치유, 근거이론

* 본 논문에서 사용된 원자료는 2005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가 수행한 <성폭력피해자치유프로그램(책임연구자 변혜정)>에서 출처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E-mail : hskwon@kyci.or.kr

성(sexuality)은 신체구조, 사회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함께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각되고 경험된다.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들은 개인의 성적 발달에 왜곡된 지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이나 신체 지각 및 대인 지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주용, 김정규, 2006).

성폭력 피해는 삶의 모든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의 20~30%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성폭력 피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ussell & Bolen, 2000; 박 경, 2006).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수치심, 혼란, 분노, 배신, 적개심, 복수심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적절한 성적 행동, 행동 위축, 자살이나 자기-파괴적인 행동, 신체화 증상, 불법 행위, 가출, 약물남용 등의 행동문제를 자주 보인다(이재창, 1996;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Stern, Lynch, Oates, O'Toole, & Cooney, 1995),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건전하지 못한 또래 집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에 저촉되는 활동(예, 성범죄, 매춘, 도박, 소매치기 등)에 연루되는 경향이 높다(DiLillo & Long, 1999).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부적응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효과적인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Scott Heller, Larriue, D'Imperio, & Boris, 1999).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의 정체성

을 가지고 치유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존자의 치유 과정을 이해하고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Banyard & Williams, 2007; Glaister & Abel, 200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치유(healing)는 생존자 문헌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으로 회복(recovering), 대처(coping), 생존(surviving)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Glaister & Abel, 2001). 회복이란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대처란 상황이나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외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생존이란 위협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견뎌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치유는 개인이 경험하였던 문제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deVries, 1993). 치유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이고 깊이 있는 변형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Schneider, 1995). 그리고 치유 경험은 자신의 경계선을 확장시켜서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거나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Coward & Reed, 1996). 무엇보다 치유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며,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Criddle, 1993; Draucker, 1992; Fleury, Kimbrell & Kruszewski, 1995).

치유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에 따라 촉진될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다(McCabe, 1995). 긍정적인 태도는 치유를 촉진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는 치유를 방해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태도란 목적지향적인, 수용하는, 인내하려는,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낙관주의 등

을 말한다. 부정적인 태도는 비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낙담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지체하는 것 등을 말한다(Criddle, 1993; McGlone, 1990). 긍정적인 자기-수용력을 가진 개인들은 수월하게 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인하였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감춰 두었던 부분들을 마저 수용한다면 전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치유는 돌봄, 공감, 존중, 진실, 개방, 그리고 신뢰로운 관계를 통하여 촉진될 수 있다(McGlone, 1990).

일부 연구자들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치유를 촉진시키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접근들을 시도하였다. Draucker(1992)는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치유 과정을 기술하는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치유 상태에 이른 생존자들의 지각을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조절하였으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ondora(1993)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5명과의 인터뷰에서 ‘옛날 일이 다시 찾아오는 기억’과 ‘돌봄: 자기감의 재구성’이라는 두 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잘 돌보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때 새로운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Valentine과 Feinauer(1993)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종교와 영성,

타인 비난 귀인 양식, 내적 통제감, 긍정적인 인생관 등 치유를 촉진시키는 적응 요소를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치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나아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생애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들이 치유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Draucker(1999)는 10명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성폭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적이고 일상 생활을 잘 관리하였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Ligiero(2003)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라틴계 여성 9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피해 경험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정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 여성, 섹슈얼리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갖고 있고 내적인 힘, 성피해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적극적인 대처 방식들, 그리고 가족, 상담전문가, 사랑하는 연인의 사회적 지지 등이 치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요소들은 개인내적인 차원,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내적인 차원으로 자기-수용, 귀인 양식, 내적 통제감, 이타주의, 희망,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차원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로운 관계, 사회적 지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대중 앞에서 성피해 경험 말하기 등이 해당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유 관련 요인들은 횡적인 측면을 주로 보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종적인 측면에서 치유를 고찰한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치유 패턴과 각 단계의 주제들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작 단계는 자기 혐오적이고, 성적인 수치감이 가득 하고, 무망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이고, 자기 이해가 증가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치유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참여자들은 상담 관계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서서히 분리시켜 나가고 있었다(Criddle, 1993; Draucker, 1992; Fleury, Kimbrell, & Kruszewski, 1995; Godbey & Hutchinson,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치유 과정이 유동적이고 개별적이긴 하지만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neider, 1995). Bass와 Davis(1988)는 치유 결심하기, 위기 단계, 기억하기, 그것이 어렸음을 믿기, 침묵내기, 자신의 탓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자기 내면의 아이와 만나기, 자신을 신뢰하기, 슬퍼하기, 분노하기, 드러내기, 직면하기, 용서, 영성, 그리고 통합와 전진 등의 과정을 통해 치유가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명희(2003)는 3명의 친족성폭력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폭력 피해 후유증 극복 과정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 단계, 죄의식의 극복 단계, 외부 세계와의 화해 단계, 그리고 자기 긍정감의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ker(2004)는 히스패닉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치유 과정을 분석한 결과, 침묵 단계, 수치심 내면화 단계, 저항 단계, 내적인 힘 발견 단계, 성폭력피해상황으로부터 분리

단계, 긍정적인 의미 해석 단계 등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치유 과정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 과정을 단선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선적인 모형으로는 역동적인 치유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almer, Brown, Rae-Grant, 그리고 Loughlin(1999)는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선형적인 치유 모형을 논박하기도 하였다. Harvey(1996)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들의 회복 과정을 질적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될수록 각 단계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가곤 하는 비선형적인 패턴을 발견하였다. Barringer(1992)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회복 과정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나선형이며, 성폭력으로 인한 아픈 경험들이 사라질 때까지 각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계들은 순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결코 끝이 아니며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Herman(1997) 또한 치유 과정을 안전단계, 기억하기와 애도하기 단계, 재결합 단계로 나누어 보았고, 치유의 각 단계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이전의 이슈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룬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차원의 촉진 요소들을 발견하고, 치유 과정 패턴과 각 단계의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유 경험에 관한 타당한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성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폭

력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발생 당시의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Glaister & Abel, 2001).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사회 속에 살면서 자신이 속한 범주를 중심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명명하고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방희정, 조혜자,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과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들이 다르므로 국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외국 피해자의 경험과 비슷할 지는 의문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 피해 과정이 단선적인 모형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나선형적이고 순환적인 모형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국내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 모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폭력 피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치유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혀낸다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경험의 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근거이론 방법이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치유 과정을 분석하

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근거이론적 방법은 ‘참여자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Schreiber & Stern, 2001)이므로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치유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의 고통과 치유에 관한 연구는 양적 방법론이 아닌 질적 연구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성적, 정서적 문제들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거이론적 방법론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경험에서 개념, 범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피해자의 치유 과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근거이론은 이와 같은 초창기 연구의 부족을 극복하고 개념과 변인 발견을 통해 잠정적 이론화를 추구하는 데 유용하므로(Strauss & Corbin, 1998)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이론적 도출을 위하여 근거이론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치유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2. 치유 과정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3. 치유 과정의 각 단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활용되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 대상을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본 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정신과 치료 등 전문상담 경험이 있는 성폭력 여성 피해자이다. 여성 피해자들도 피해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여성 개인의 독특한 역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95%가 여성이며 여성으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공통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변혜정, 조중신, 김지혜, 권수현, 권해수, 정유석, 김혜정, 현혜순,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 2005).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의 어떠한 요소들이 치유 과정을 도왔는지에 구체적인 관심이 있다. 이때

성폭력 피해의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요소들이 다양하겠지만 특히 ‘상담’으로 한정된 이유는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 쉼터의 담당자에게 본 상담의 취지 및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속 기관의 내담자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의뢰받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고, 자료에서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참여자 수를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자 수는 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은 18세~35세의 범위로 평균 24세였다. 피해 유형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7명, 일반 강간 피해자 1명, 데이트 강간 피해자 1명이었다. 직업은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명, 무직 4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가명)	나이	성별	직업	상담 경험	피해유형
가영	19	여	학생	개인 / 집단상담	동네사람에 의한 강간
나영	19	여	학생	개인 / 집단상담	친부성추행
다영	22	여	무직	개인 / 집단상담	친부강간
라영	24	여	무직	개인 / 집단상담	모르는 사람 강간
마영	18	여	학생	개인 / 집단상담	사촌오빠 강간
바영	23	여	무직	개인상담	친부 강간
사영	35	여	무직	정신과치료	의부강간, 배우자 강간
아영	28	여	학생	개인 / 집단상담	삼촌강간
자영	29	여	사무직	개인상담	데이트강간

명, 사무직 1명이었다. 참여자 전원 개인상담을 받았으며, 이들 중에서 6명은 집단상담 참여 경험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에 따른 필수적 절차에 따라(Mason, 1996)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주제, 연구 절차,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 요소,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 및 불참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 등을 상세히 알려준 다음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 1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 주제는 “당신의 치유 경험에 대하여 말해 주세요”이었다. 참여자들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면담에서의 질문은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 보다는 면접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인터뷰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상담실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조용한 찻집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근거 이론에서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후속 인터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가 끝난 즉시 연구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녹음된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는 필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드화 되어 분류된 축어록을 분석하여 표출된 현상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선행 인터뷰에서 나온 분석 결과는 다음 참여자에 대한 질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미 나타난 개념과 범주가 후속 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하려는 상황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문화와 행위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중요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가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력으로 연구자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추가 자료 수집 영역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소연, 2003). 이에 연구진은 국내에 소개된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자료와 선행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며 연구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경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작성된 축어록은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들로 정리되었다. 개방코딩 단계는 원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로서 줄마다 읽어가면서

문장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명화하였다. 이때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개념들을 분류, 비교, 유사한 현상끼리 묶음 등을 시도하여 관련된 개념들을 하위 범주로 묶었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분석된 범주들이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재배치된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화 과정에 따라 핵심 주제인 현상을 가져온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그리고 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들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Ninkon과 Guba(1985)이 제시한 평가 기준-중립성,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연구의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가능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및 주제와 관련된 개인 경험 등을 보고하여 자기 성찰과 민감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사실적 가치는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연구대상자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축어록을 송부하여 기록된 내용이 인터뷰 상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동의를 구하였다. 세 번째, 적용가능성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소장 2인, 성폭력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소지자 각 1명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 이외의 성폭

력 피해여성에게 적용가능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논문 경험이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 1명과 박사과정생 2명, 성폭력상담전문가 1인(상담 경력 15년)에게 연구 설계 및 코딩 과정 전체에 대한 수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개념들을 제시해주고 이를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묶도록 요구하였는데 상당히 유사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논의를 거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 과

근거 자료의 범주화

참여자들의 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84개의 개념들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유목화한 결과 성폭력 인지, 체념, 절박감, 비가해부모에 대한 분노, 주변인에 대한 분노 등 29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다시 유목화 작업을 통하여 성폭력 인지, 절박감,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가해자 구속과 처벌, 고통과 혼란, 자기를 괴롭힘, 대인관계 불신과 적대감, 지지받음, 성폭력 의미 재해석, 감정과 만남, 새로운 대처 기술 배움,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짐, 당당하게 살아가기, 삶을 재구성함 등의 15개 상위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 개념의 범주화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상위 범주
	성교육을 통한 성폭력 인지	성폭력 인지	성폭력 인지
인과적 조건	강압에 찌든 삶 오직 신에게만 매달림	체념	
	노예같은 삶에 대한 거부 지금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음 성피해를 끝내고 싶은 절박함	노예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절박함
맥락적 조건	목인하는 행위에 대한 배신감 엄마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 치솟음	비가해부모에 대한 분노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
	피해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	주변인에 대한 분노	
	남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접촉욕구에 대한 죄책감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성 및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판결에 대한 분노 누우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배신감 가해자의 죽음을 갈망	가해자 및 판결에 대한 분노	가해자 구속과 처벌
	혼란스러움 신경질적으로 되어버림 짜증이 늘어남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냄	짜증이 늘어나고 신경질적이 됨	
	심한 좌절감 무기력증에 시달림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자살 시도	무력감과 자살시도	고통과 혼란
중심현상	반복적인 악몽으로 고통스러움 기억이 물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잠들기조차 두려운 상태	기억이 떠올라 고통스러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움 약, 술 등으로 자기 몸을 망가뜨림	스스로 자기를 벌함	자기를 괴롭힘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 인간관계 잘라버림 매장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인간관계 단절	
	사람을 신뢰하지 못함 일단 의심부터 하는 불특정인에 대한 분노감 인간 전체에 대한 배신감 타인을 무조건 공격자로 봄	타인 불신	대인관계 불신과 적대감

표 1.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 개념의 범주화 (계속)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상위 범주
중재적 조건	상당자에 대한 고마움 상당자와의 신뢰관계 상당자는 119와 같은 존재 온전히 나와 함께 있어줌	상당자로부터 온전한 지지를 받음	
	남자친구의 지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줌 나의 성장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지지	지지받음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 나의 진정성을 알아줌 일에 대한 인정	일터에서 인정받음	
	성폭력이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됨 피해 이후의 생애과정 탐색하기 성폭력 역사 제대로 들여다보기	성폭력을 새롭게 들여다보기	성폭력 의미재해석
작용/ 상호작용 전략	상실감과 슬픔 표출 자기 감정에 귀기울이기 스스로 불쌍하다는 느낌 실컷 울어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픔	내면의 슬픔과 맞닥뜨림	감정과 만남
	가해자에게 대한 분노 치솟음 분노가 삭혀지지 않음	실컷 분노함	
	글쓰기를 통한 자기 분석 힘들 땐 책에 몰입함 불안할 때 음악 듣기 댄스에 푹 빠짐	자기를 돌봄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배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받아들임 그만 푹!하기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싶음 미래 가정에 대한 열망이 생김 하고 싶은 일 그려보기	변화를 갈망함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미래에 대한 희망		

표 1.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 개념의 범주화 (계속)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상위 범주
결과	있는 현실을 껴안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냄 주어진 삶을 버티기 살아남은 자로서의 뿌듯함 포기하지 않고 견뎌냄	생존자되기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감
	당당하게 살아가기 자신감 생김 사회행사에 참여하기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관계를 회복함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자기와의 화해 스스로 위로하기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자기와의 화해	삶을 재구성함
	내 몸의 느낌 찾기 감정 세계 재구성	느낌 되찾기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결과를 기초로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성폭력 인지와 절박함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가해자 구속과 처벌 등이었다. 중심 현상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었고, 이러한 중심 현상 속에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은 상담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것과 성폭력 피해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감정과 맞닥뜨리는 것이고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이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와 삶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거나 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인지’, ‘절박함’이 중심 현상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인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참여자들에게 성폭력은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개념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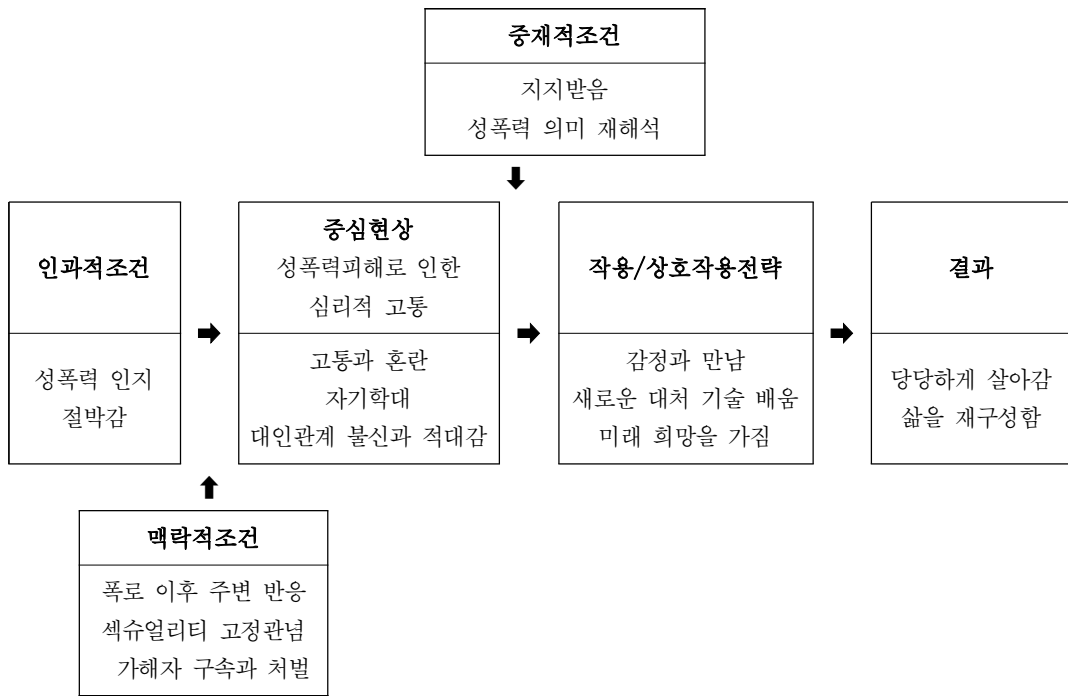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아버지의 매를 피하기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성교육을 통하여 성행위, 임신, 출산, 성폭력에 관한 지식을 접하면서 자기에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개념화하게 되었다.

“그게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학교때 선생님이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면서 성폭력이 뭐고 다 알려주고요 임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임신한 줄 알았어요. 임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배도 불러오고 놀래서 방망이로 때려보고” <다영, 친부강간>

절박함

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중단시켜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가해자의 성폭력은 멈춰지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성폭력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외부와 고립되어 있고,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자신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가해 행동이 쉽게 끝나지 않자 이리다가 영원히 가해자의 성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혹은 일상 생활로 묻혀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절박함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저에겐 그게 완전 생활이었어요. 완전히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늘 불안하고, 그때는 노예였어요. 모든 게 다 아빠(가

해자)생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깨워서 밥상 차려라 했고, 말없으면 다 옳고 그런 게 항상 반복되었어요”<바영, 친부강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그 전에는 숨기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나는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죽어버려야지. 혈서로 유서를 쓴 걸 보여주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바영, 친부강간>

“그 생활에 파묻히게 되니까 없는 것처럼 지나갈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지금 말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았어요”<나영, 친부성추행>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폭로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가해자 구속과 처벌’,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이 나타났다.

폭로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 상황을 폭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로 인한 참여자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비가해부모, 교사, 친척)들이 피해 사실을 묵인하거나, 관련 사항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원망스럽고 심한 분노감과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저는 엄마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야기 할 상황이어도 숨긴 것도 엄마를 보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할 때도 엄마가 고혈압이니까 모르게 해달라고. 엄마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그 하루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냥 엄마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한테 무관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는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일이 해결된 다음에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일하고 나서 지치면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엄마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받고 싶은 거예요”<바영, 친부강간>

“제가 미웠던 게 할머니요. 할머니의 묵인 하에 자기 아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자리를 비켜주었거든요. 엄마는 알긴 알았지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사영, 의부강간과 배우자강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니만 당하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도 당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미칠 것 같았어요”<가영, 동네사람에 의한 강간>

가해자 구속과 처벌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사죄이었다. 참여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원히 씻지 못한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구속시킨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겠다며 협박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 때문에 자신들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에 비하여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경미한 것 같아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가해자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저는 판결이 제일 화났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3개월이 제일 힘들었어요. 살인죄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 살인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죽으려고 했으니까.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이지만 저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바영, 친부강간>

“아빠가 죽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데 죽이면 내가 감옥에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존재가 아예 없어져야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부딪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정말 무서운 존재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다영, 친부강간>

“구속된 이후 한번 면회를 갔어요. 저

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나 그냥 여기에 있겠다고. 저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나 빨리 꺼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이 상처받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영, 의부강간과 배우자강간>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섹슈얼리티 개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대부분 남성, 여성, 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자기 안에 형성된 왜곡된 섹슈얼리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제 이미지 속에는 성은 더럽다, 제가 보는 남자는 무능력하고 의존적이고, 더러운 짓밖에 하지 않는 존재, 그렇게 밖에 인식되지 않더라고요” <라영, 모르는 사람 강간>

“결혼해서 살다가 혹시 남편이 알게 되지 않을까. 나는 성폭력 당하고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영, 의부강간과 배우자강간>

“성에 대해서 왜곡된 걸 갖게 되었어요. 이성을 보고 싫으면서도 왜곡된 게 잘못된 게 자주 있다보니까 습관이 되고 학습이 되다보니까 싫으면서도 만져주는 걸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은 못했어요”<아영, 삼촌 강간>

중심 현상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

중심 현상이란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 관념 또는 사건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 고통과 혼란, 자기를 괴롭힘, 대인관계 불신과 적대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 현상은 참여자의 대처 능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전략들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처해 있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고통과 혼란

참여자들은 폭로 이후에도 피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 당시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부정적인 감정(우울, 분노, 불안, 공포 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살 충동도 자주 느꼈다.

“아버지가 구속되고 다음 1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당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구속되자마자 밀려오는 생각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해왔던 게 한꺼번에 생각나는 것 있죠. 정말 버거웠어요.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했어요”<바영, 친부강간>

“일이 끝났는데도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와요. 그러면 지하철 움직이는 바람이 확 오거든요. 스릴을 느껴요. 확 뛰어든 듯한 느낌,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사건을 끝낸 다음에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정신이 돌아와요. 아 내가 이렇게 당했었구나...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당할 때는 안 힘들어요”<라영, 친부강간>

“우울증을 많이 앓았어요. 늘 가면 속에 살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말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증에 시달렸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실 지금도 머릿 속에 안개가 씌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하고 싶은데 무기력해지니까 그때마다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가영, 동네사람에 의한 강간>

자기를 괴롭힘

참여자들은 피해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였다. 피해를 당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찾지 못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술이나 약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짜증내는 자신을 보면서 당황해 하였다.

“사실 저한테 원망 많이 했어요. 거기서 나오지만 앓았어도 일만 잘했더라면, 내가 노력을 좀 더 해서 제대로 일만 했으면 이렇게 나올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자신을 원망 많이 했죠. 길 가다가 짜증나면 같이 가던 사람한테 짜증내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것도 엄청 싸웠

어요”<자영, 데이트강간>

“그 어느 순간에 보면 분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폐인이 되기 시작한 건데, 술쳐먹고 다니고, 이 생활이 한 달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나서 알콜 중독이 되었어요”<나영, 친부성추행>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아영, 삼촌강간>

대인관계 불신과 적대감

참여자들은 성폭력 이후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일단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행동을 보였다. 폭로 이후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인 반응(회피, 부인, 비난 등)을 받았던 경우 상처받고 억눌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을 일단 못믿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건 내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냥 같이 있어서 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늘상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친밀해지지 못하는 못하는”<다영, 친부강간>

“사람을 믿지 못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못 믿겠어요.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의심이 가요”<자영, 데이트강간>

“이미 나는 나를 잘라버렸거든요. 인간관계? 굉장히 피상적이고 다들 적으로 보이고, 항상 나에게 공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공격자가 될 수 있었고, 사람에 대한 개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고..”<아영, 삼촌오빠강간>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한다.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전개 과정에서 취해지는 전략이 성폭력 개념 재해석과 지지적 관계에 따라 촉진 또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피해 의미 재해석’, ‘지지받음’이 중재적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지지받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기꺼이 들어주며, 자신들을 피해자가 아닌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힘겹고 느리다 하더라도 치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분노,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동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반응으로 이해해 줄 때 큰 힘을 얻었다.

“그냥 상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도 내가 성장하고 극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 나만큼이나, 나 말고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라영, 모르는 사람 강간>

“상담자가 의도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나의 성폭력 사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피해자로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내 삶에, 나도 관심없었고 나도 신경 안썼던 내 삶에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게 신뢰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성폭력이 다가 아니야”<사양, 의부강간과 배우자 강간>

“저 같은 사람은 책임감 있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히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아서 옆 공장에 스카웃되고...”<가영, 동네사람에 의한 강간>

성폭력 피해 의미 재해석

참여자들은 점차적으로 성폭력은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어린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자신을 방어할 기술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였으나 더 강한 힘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지나친 책임감과 자기 학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중략) 어떤 부분이 잘못 굴러간 거고, 나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고, 나는 어떤 식으로 잘못 판단을 했었고, 이런 게 쪽 보이기 시작한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내고 탐구해 나가는 게 굉장히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라영, 모르는 사람 강간>

“내가 했던 게 ‘나를 강간해 주세요’라는 표시가 절대 아니었고, 이렇게 구분되고 머리로 내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깨닫고 알아갔던 부분이 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자기한테 무지한 애가 제 기능을 하면서 자기를 돌볼 수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바보 생활하던 나에 대해서, 왜 바보였는지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었지요. 나를 안 버려도, 안 죽여도 되는 거였고, 나를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었어요”<자영, 데이트강간>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재는 이런 애야 라고 판단하고 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여전히 성폭력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다니더라도 어쩔 거냐고요.. 근데 그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나영, 친부성추행>

작용/ 상호작용 전략

어떤 현상이 진후 관계 혹은 특정 조건하에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

행하고, 반응하는 데 사용되는 작용/상호작용이 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연적이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목적을 지니는 목표 지향적인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중심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조절하는 것으로서, ‘감정과 만나고’, ‘새로운 대처 기술들을 터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과 만남

참여자들은 피해 경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상담자(혹은 지지원)로부터 진심어린 공감을 받으면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억압하였던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치유 경험이었다. 슬픔과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 당사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감정들을 재경험하는 것이었다.

“상담을 받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눈물 닦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5월쯤인가 상담선생님이 한번 소리 내서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풀어보라고. 그때 온갖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혼자 울면 바보같잖아요. 일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래서 못 울고, 눈물이 나는 데 그냥 닦기만 했어요. 전에는 울 수도 없었어요. 울다가 엄마가 그걸 알면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빠는 저한테 돌아오고. 몰래 몰래 울었거든요. 상담시간에 울 수 있게 하니깐 진짜 그때는 속이 시원했어요. 선생님께서 같이 욱해줬어요. 같이 욱해주

니까 그게 더 시원했어요. 상담선생님이 심하게 욱할수록 더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제 증오를 표출했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그때 너무 편했어요. 모든 편을 다 들어준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욱을 해도 그것 자체로 벌 받을 거 같았거든요. 소리내어 울었을 때는 진짜 많이 속이 시원했어요”<자영, 데이트강간>

“그냥 울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울게 내버려두고, 그런 경험도 처음. 내가 애들한테 받은 따뜻한 느낌이었던 거예요”<라영, 모르는 사람 강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노도 못했어요. 내가 잘못된 거고... 등등 그러다가 이 인간의 인간성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이었고, 내가 힘든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분노를 막 하다보니 이게 나한테 큰 거였구나, 어쨌던 그 때 느꼈던 극심한 분노, 세상을 갈아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자영, 데이트강간>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배움

참여자들은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파괴적인 방식 혹은 회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고, 자신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자기 안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겁고 힘든 주제를 다르게 해소할 수 있고, 빗대어 표현하면서 그걸 내가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는 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훨씬 나에게 가벼워진 느낌, 내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겠다는...” <나영, 친부성추행>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생각을 지워요. 상담선생님이 알려준 거 있거든요. 속으로 그만! 딱. 그러래요. 저한테 체면을 걸어요. 좋아하는 것 생각해요.” <마영, 사촌오빠 강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참여자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더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치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다.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미래의 삶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꿈이 이루어지면 달라질 것 같아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꿈이 있어서. 나중에 성공하면 책도 낼거예요. 어렸을 때 일 다 밝혀내고. 그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 정말 많아요.” <아영, 삼촌강간>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려보면 아픈 기억들이 다 잊어졌어요.” <사영, 의부강간과 배우자강간>

결과

결과는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감’과 ‘삶을 재구성함’이 결과로 분석되었다.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감

치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해왔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고난들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피해자 각본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생존자의 각본을 덧입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참여자들을 괴롭혀온 부정적인 생각들(나는 쓸모없다, 잘 할 수 없다,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치가 없다 등)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나는 소중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는 자긍심을 북돋우는 내용으로 채워 넣었다. 참여자들은 생존자로서 자기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의 편견과 당당히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견디자, 그냥 이겨내자. 내가 뭐가 할 말을 하려면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나영, 친부성추행>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기회가 된다면 성폭력 관련된 시민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자영, 데이트 강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위축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갈거예요”<마영, 모르는 사람 강간>

삶을 재구성함

‘삶을 재구성함’은 치유 과정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획득되는 최종 산물이었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이미 일어났고, 자신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도 잘 알았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가 전체 인생에서 단지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유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게 되었고, 모든 혼돈과 분노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치유 과정을 견뎌낸 결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내 감정을 없애고 열을 끄끔 앓더라도 아픈 줄 모르는 불감증이었고 나를 죽이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고... 온갖 감정이 올라오고, 상담은 온갖 걸 쏟아내고, 그것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감정 하나 하나 내 몸의 느낌을 찾았다. 그냥 상담이 아니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알고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감정, 상태.. 그 전에는 내가 이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몰랐는데 그때 전부 다시 재구성하게 되었어요”<라영, 모르는 사람 강간>

“딴 생각은 없고, 그냥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볼 일 없고, 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날 볼 수도 없고, 이런 일 겪을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다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냥 저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비유할 것 없어요”<자영, 테이트강간>

“내가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감정에 시달렸었어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부분까지 다 정리되고 나니까 나하고 해결보고 화해하게 되었어요”<가영, 동네사람에 의한 강간>

“내가 갈 곳은 다 왔고,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어차피 아팠던 것은 속상했던 것은 내가 안고 가야 할 짐이고,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사는 게 그런거지. 화가 불끈불끈 나도 옛날에 힘든 일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감당이 안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사양, 의부강간과 배우자강간>

치유과정 분석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은 단절 단계, 회복 단계, 구축 단계, 통합과 전진 단계로 나타났다. 치유 과정은 한 번의 치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애 주기의 발달 과업에 직면

하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고 발전되는 나선형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끝이 아니라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1단계: 단절 단계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한 이후 외견상은 적응된 것 같고 성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신뢰감의 상실로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피해 여성들은 닫힌 세계로 은둔하였다. 학교나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예, 불안, 분노, 우울 등)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더 이상 피해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바꿔볼 의지도 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배제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단계: 회복 단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지지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를 통하여 성폭력 기억들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억압해놓은 관련 정서들(예, 상실감, 분노 등)을 재경험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사고들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원인이 내 탓이 아니었음과 그 당시 자신의 대처 방식이 정상적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을지라도 치유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것에 대한 수용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받

아들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찾고 회복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와 힘을 가지게 되었다.

3단계: 구축 단계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이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에게 적절한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자기 안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과거의 성폭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미래의 삶은 자신이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각본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생존자 각본을 덧입었다. 동시에 자신을 괴롭혀 온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내고 ‘나는 소중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긍심을 북돋우는 메시지를 채워 넣었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 사회적 관념들과 자신을 피해자 역할에 가두었던 사회적 압력에 당당히 맞서는 의지를 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꿈이 실현될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4단계: 통합과 전진 단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가 전체 인생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모든 혼돈과 분노들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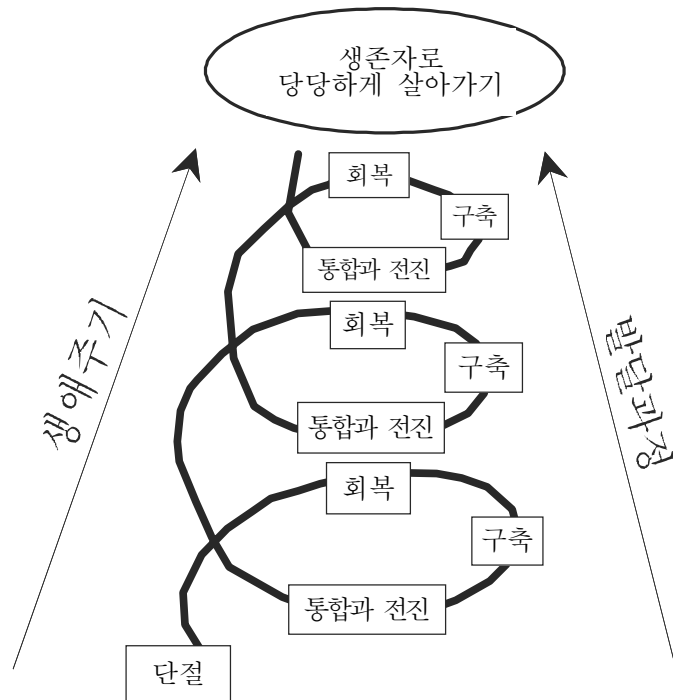


그림 2.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순환 과정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단절된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가 연결되며,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감정의 혼란 없이 성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관심이 치유의 과제에서 일상의 과제로 옮겨가고,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회복되고,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을 이해하고 치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실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치유 과정을 밝아

나간 여성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행하였고, 얻어진 경험 자료를 개념으로 명명한 후 보다 추상적인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다시 명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도출된 개념은 84개였고, 하위 범주는 29개, 범주는 15개로 나타났다. 이들 개념과 범주들은 치유 과정의 시계열적 전개에 따라 인과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삶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치유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류·명명된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유 과정에 있어서 인과적 조건은 ‘성폭력 인지’와 ‘절박함’으로 나타났으며, 중심 현상은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고통과 혼란, 자기를 괴롭힘, 대인관계 불신과 적대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락적 조건은 ‘폭로에 대한 주변의 반응’,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중재 조건은 ‘지지받음’과 ‘성폭력 피해 의미 재해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 과정에 있어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감정과 만남’,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배우’, ‘미래 희망을 가짐’이었으며, 치유 과정의 결과로서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감’, ‘삶을 재구성함’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도출된 이들 범주를 재배치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은 단절 단계, 회복 단계, 구축 단계, 통합과 전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유 과정은 한 번의 치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애주기의 발달 과업에 직면하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순환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생애 발달 과제와 성폭력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다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치유가 되어도 다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번 치유되면 단절의 단계로 회귀하지 않고 회복 단계, 구축 단계, 통합과 전진 단계를 순환하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지지받음, 성폭력 피해 의미

재해석, 감정과 만남,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배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공수자, 이정숙, 2004; 김경희, 남선영, 지순주, 권혜진, 정연강, 1996; Draucker, 1999; Hafen, Karren, Frandsen & Smith, 1996; Ligiero 2003; Valentine & Feinauer, 1993)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맞서고,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희망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긍정적인 태도의 핵심 개념이며(Hafen et al., 1996), 자신의 꿈이 실현될 미래를 꿈꾸어봄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과거에 집중되었던 초점을 현재와 미래로 옮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Herman, 1997).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희망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상담자 스스로 치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치유 과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한 결과 성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에게 귀인시킬 수 있었으며, 왜곡된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단절 단계, 회복 단계, 구축 단계, 통합과 전진 단계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 밝혀진 치유의 4단계는 선행 연구들(이명희, 2003; Baker, 2004; Bass & Davis, 1988; Herman, 1997)에서 밝혀진 치유 과정의 단계들과 유사한 것으로, 치유과정이 유동적이고 개별적이긴 하지만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는 Schneider(1995)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선행 연구들은 치유 과정을 단선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고에서 밝혀진 치유 과정은 나선형이며, 성폭력으로 인한 아픈 경험들이 사라질 때까지 각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끝이 아니라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유 과정의 패턴을 나선형으로, 순환적인 패턴으로 주장한 선행 연구들(Palmer et al., 1999; Barringer, 1992; Harvey, 1996)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애 발달 과제에 직면할 때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보이는데, 일단 치유 과정이 시작되면 유사한 삶의 실패가 발생해도 다시 단절 단계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Herman(1997)가 언급한 치유의 각 단계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이전의 이슈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룬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치유 과정은 어렵고 힘들며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하였으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피해 여성들은 주변 인물들과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서 자신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의 존재를 확고하게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관련 문헌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성폭력 피해의 문제점과 피해 상담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였지만(공수자, 이정숙, 2001; 권혜수, 이재창, 2003; 권희경, 2004; 김경희, 남선영, 지순주, 권혜진, 전연강, 1996; 김정규, 1998),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내적인 자원과 강점을 통하여 치유 과정을 잘 견뎌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친지, 지역사회로부터의 강한 사회적 지지와 유대감이 성폭력 피해와 같은 외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유연성(resiliency)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승연, 2007)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피해 경험을 인식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과거의 한 시점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식하면서 성폭력 피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한 Valentine과 Feinauer (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관점을 가질 때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꺼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상담자들은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치유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고통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피해 여

성들은 상담자가 자신들과 온전히 함께 있어 줄 때, 자신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한국인의 신뢰 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탐구한 박영신, 김의철(2005)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뢰 형성에서 정서적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일반적인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과의 상담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피해 여성들은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에서 큰 진척을 이루었다. 그동안 병에서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데는 자신에 대한 신념, 의사(치료자)에 대한 신념, 치료에 대한 신념 및 자신의 영적인 신념이 중요하다(손정락, 2005)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신념과 확신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상담자의 확신 또한 치유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O'Hanlon과 Betonlino(1998)가 피해자 치유 상담에서 수행한 몇 가지 의식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피해자로서의 삶은 이미 종결되었으며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의식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치유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것을 공유하고, 치유 여행을 하는 동안 내담자가 가진 강점과 적응의 결과로서 나타난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성폭력 상담 실제 및 상

담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의하면 치유는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단 한 번의 치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애 발달 과제에 직면하면 그 주제가 반복되고 발전되는 순환적인 특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에 대한 희망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 또한 피해자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Dolan(1991)는 성폭력 피해와 같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낙천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결중심적인 접근 방법과 에릭슨적 관점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 때 그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적인 힘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들이 다양한 역경을 딛고서 치유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강조할 때 상담의 효과성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치유 집단상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집단상담자는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들이 주어진 난관들을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Chew(1998)는 성폭력피해자의 개입 방법으로 집단상담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강조하고, 에릭슨적 관점과 해결중심적 접근 방법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가진 내적인 자원을 강조하고, 내담자들이 이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킬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각본에서 벗어나 생존자의 각본을 덧입고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이 향후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 개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치유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모두 인터뷰를 자원한 사람들이고,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유경험자이므로 한국 전체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상담 경험이 없는 피해 여성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향후 상담 경험이 있는 사례가 아닌 자연 치유 과정을 밟은 대상자를 심층 면접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범주들을 확인하고 수정, 발전시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고적인 방식에 의해 치유 과정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참여자의 기억력, 생애 사건, 그리고 관계 양상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정확한 본질과 그것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치유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자료를 해석하였다. 향후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과 다양한 피해 집단을 활용하여 본 연구 결과가 수정되거나 타당화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더라도 본 연구 참여자들처럼 모두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상담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해진 연구이므로 상담무경험자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피해 유형, 상담참여 유무, 참여자의 연령과 직면한 생애발달과제 등에 따라 참여자를 분류하여 치유 요소 및 치유 과정 패턴을 재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수자, 이정숙 (2004).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3(1), 51-63.
- 권혜수, 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22-31.
- 권희경 (2004). 성피해 상담 모델들과 상담 성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187-205.
- 김경희, 남선영, 지순주, 권혜진, 정연강 (1996).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77-98.
- 김소연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69-80.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 박 경 (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 방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방희정, 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 변혜정, 조중신, 김지혜, 권수현, 권해수, 정유석, 김혜정, 현혜순,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서울: 여성가족부.
- 손정락 (2005).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85-95.
- 이명희 (2003).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승연 (2007). 심리적 경험 보고(debridfing)의 문제점들과 올바른 적용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63-89.
- 이재창 (1996). 청소년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피해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세미나자료집, 21-44.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주용, 김정규 (2006).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511-547.
- Baker, J. A. (2004). Long-term responses to childhood sexual abuse: Life histories of Hispanic women in midlife.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200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5361.
- Banyard, V. L., & Williams, L. M. (2007). Women's voices on recovery:: A multi-method study of the complexity of recovery from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31, 275-290.
- Barringer, C. E.(1992). The survivors's voice: Breaking the incest taboo. *National Women's Studies Association Journal*, 4, 4-22.
- Bass, E., & Davis, L. (1988). *The courage to heal: A guide for women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New York: Harper & Row.
- Chew, J. (1998). *Women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Healing through work: Beyond survival*. New York: Hawthorne Press.
- Coward, D. D., & Reed, P. G. (1996). Self-transcendence: A resource for healing at the end of lif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7, 275-288.
- Criddle, L. (1993). Healing from surgery: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3), 208-213.
- deVries, M. J. (1993). *Choosing life: A new perspective on illness and healing*. Amsterdam: Swets & Zeitlinger B. V. Publishers.
- DiLillo, D., & Long, P. J. (1999). Perception of couple functioning among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7(1), 59-76.
- Dolan, Y. M. (1991). *Resolving sexual abuse: Solution-focused therapy and Ericksonian hypnosis for adult survivors*. New York: Norton
- Draucker, C. B. (1992). The healing process of female adult incest survivors: Constructing a personal residenc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1), 4-8
- Draucker, C. B. (1999). Early family life and victimization in the lives of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 399-412.
- Fleury, J., Kimbrell, L. C., & Kruszewski, M. A. (1995). Life after a cardiac event : Women's experience in healing. *Heart & Lung: Journal of Critical Care*, 26(6), 474-482.
- Glaister, J. A. & Abel E. (2001). Experiences of women healing from childhood sexual abuse.

-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5(4), 188-194.
- Godbey, J. K., & Hutchinson, S. A. (1996). Healing from incest: Resurrecting the buried self.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304-310.
- Hafen, B. Q., Karren, K. J., Frandsen, K. J., & Smith, N. L. (1996). *Mind/body health: The effects of attitudes, emotions, and relationships*. Boston: Allyn and Bacon.
- Harvey, M. R. (1996). An ecological view of psychological trauma and trauma recove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3-23.
-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Kondora, L. L. (1993). A Heideggerian hermeneutical analysis of survivors of inces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1), 11-1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giero, D. P. (2003). Culture, coping and childhood sexual abuse: A qualitative study of Latina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200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4, 2927.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34-562.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1999).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McCabe, P. (1995). Exploring the phenomenon of healing. *The Australia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2(1), 13-24.
- McGlone, M. E. (1990). Healing the spirit. *Holistic Nursing Practice*, 4(4), 77-84.
- Ni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O'Hanlon, B., & Bertolino, B. (1998). *Even from a broken web: Brief, respectful solution-oriented therapy for sexual abuse and trauma*. New York: Wiley.
- Palmer, S. E., Brown, R. A., Rae-Grant, N. I., & Loughlin, M. J. (1999). Responding to children's disclosure of familial abuse: What survivors tell us. *Child Welfare*, 78, 259-283.
- Rusell, D. E., & Bolen, R. M. (2000). *The epidemic of rap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oaks, CA: Sage.
- Schneider, P. E. (1995). Focusing awareness: The process of extraordinary healing from a rogeri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Rogerian Nursing Science*, 3(1), 32-43.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cott Heller, S., Larrieu, J. A., D'Imperio, R., & Boris, N. W. (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 Neglect*, 23, 321-338.
- Stern, A. E., Lynch, D. L., Oates, R. K., O'Toole, B. I., & Cooney, G. (1995). Self-esteem

- depression, behavior and family functioning in sexu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077-108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de.):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Valentine, L., & Feinauer, L. L. (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16-224.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6. 1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09. 28

The Experience of Healing of Female Sexual Abused Victims

Hae Soo Kweon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driven by the question of 'what the experience of healing of female sexual abuse victims is like,' explores the process the victims undergo as they heal from the traumas. Us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it analyzes nine interviews taken from victims who have received counseling. The study found that the central phenomena that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heir healing is 'mental pain due to the damage caused by sexual abuse,' the causal conditions are 'the recognition of the sexual abuse' and 'desperation,' and the contextual conditions are 'the reaction of the close ones of the victims,' 'the preconception about sexuality,' and 'the incarceration and punishment of the offenders.' The victims have been intervened in the healing process by 'being supported' and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damage caused by sexual abuse,' and are found to utilize the interactive strategy among 'facing their emotions,' 'learning new coping strategies,' and 'hoping for the future.' They are also found, as a result of the healing, to 'live unafraid as survivors' and 'have structured their lives in a new way.'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systematically elucidating the healing process and the related elements found through the voices of the survivors of sexual abus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e limi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about the studies that should follow this one are included as well.

Key words : sexual abuse, healing, grounded theories